

□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과 물류체계

한창전의 일기기는 하지만 북한이 동의만 한다면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과 중동을 가로질러 유럽에 이르는 대륙횡단 철도망을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미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철로를 보수하고 서로 연결만 하면 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그 효용성은 예측할 수 없다.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이 현대판 실크로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은 눈부시게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 반반면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세계 무역량의 1/3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의 원활한 물류 운반과 유통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앞의 대륙횡단철도연결 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이에 걸맞는 물류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인가를 지리적,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강 정 모

(사회과학대 무역학과 교수)

세계무역질서는 신지역주의 경향이 가속화되어 경제통합이 강화되고 있다. WTO에 의하면 1947-1996년까지 GATT, WTO에 통보된 135개 지역협정 중 59개의 새로운 협정이 1990년 이후에 통보되었다. (1995

년 12개, 1996년에 14개). 더구나 최근에는 지역무역협정이 심화·확대됨은 물론 각 협정지역들 간의 연계도 활발하여 대륙간 연계 자유무역구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이 세계화를 하는데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동북아 경제권은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한국의 세계경쟁력 차원에서 운송 및 물류체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조사는 전산업의 세계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1. 동북아시아 국가경제의 상호의존도 증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20년 이상을 세계보다 2배 이상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해외시장에 의존하여 왔고 앞으로도 해외시장에 의존할 것이다. 국제무역과 직접투자를 통하여 국가 경제의 상호의존이 확대되어 왔으며, 세계화가 무역, 투자, 금융 면에서 가시화되고 지역 경제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인구규모, 인당국민소득, 무역규모, 국토면적 등에서 아주 다양

세계전체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은 1980년 8.3%에서 1992년 21.3%로 크게 증가하여 이 지역의 매력적인 해외직접투자지역임을 확인하고 있는 특히 중국은 동북아시아 및 비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재원조달역할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그 비중이 1980-1992년 간에 31.8%에서 47.1%로 크게 증가하여 타지역과 대조를 이루었다.

동북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의 매력적인 해외직접투자가 대상국이 된 요인은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정책, 잘 훈련되고 교육된 저렴한 노동력, 교통 및 통신시설과 같은 양호한 사회기반시설 등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리한 특징들은 이들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잠식되었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은 공급이 수요증가를 충족시키

이며, 육상운송망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단일 운송망의 형성이 요구될 것이다. 더욱이 환경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한반도가 교역의 중심이 될 것이며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육상운송망의 연결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는 육로와 해상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유럽, 중화경제권, 동남아시아, 북미주 및 남미주, 호주 등과 연결되어 뻗어나갈 수 있어 경제적 양극단 미주와 유럽을 연결하는 역동적 무역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로부터 동북 3성, 국동러시아, 몽골, 중국을 통하여 유럽연합에 이르는 중요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속화됨에 따라 운송 및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존의 운송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역외지역과의 교역도 활성화 될 것이므로 한국 및 동북아시아와 동북

유럽 및 타아시아지역에 수송하는 육상운송과 인도양,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에 이르는 해상수송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아하이웨이와 아시아횡단철도의 개통에 관한 논의가 있어 수송체계가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부산과 광양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인 해상운송망 물류체계 구축해야

세계해운시장에서는 대규모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선이 투입됨에 따라 중심항만이 등장하고 물류활동이 집중화되고 있다. 세계화와 WTO체제의 출범으로 물자의 국제간 이동이 쉬어지고, 수송 및 정보기술의 발달로 재고의 집속관리가 용이하여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당분간 해상운송에 의한 동북아 경제권의 역외물류체계 형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역내 각국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수집하여 세계각지로 대량운송할 수 있고,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수송되어 온 화물을 역내 각지로 배송할 수 있는 역내관문으로서의 중심항만을 근간으로 물류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의 역할은

한국, 일본의 항만들과 중국의 상해항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최근 동북아 항만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부산과 광양항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북아 중심항만이 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상해는 기간항로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일본의 항만들은 육로에 의한 중계가능성이 없어 불리하나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부산항과 광양항이 일본의 고베항과 더불어 역외관문으로서 중심항만의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

광양항이 중심항만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활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배후수송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륙운송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경우 내륙운송망이 미비하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체계는 한국의 광양과 부산항, 일본의 고베항을 역외물류거점으로 하여 중국, 북한, 국동러시아의 주요 항만의 국별 또는 권역별 물류창고를 통해 주변의 내륙으로 배송되는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항발해 및 동해 연안의 주요

지역의 항만시설과 배후도로 및 철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항만시설 및 배후운송망의 미비는 역내의 경제협력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권역항만개발, 도로 및 철도건설 등에 한국과 일본이 투자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주요 권역항만 및 내륙의 물류시설도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육상운송이 지극히 곤란하므로 동북아의 물류체계는 최초발생지나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화물의 집화 및 배분을 위한 보관시설을 가져야 한다.

3) 동북아의 물류체계는 당분간 해상운송 위주로 형성되고 세계해운이 Hub and Spoke 체계화되므로 한국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항만으로서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항만배후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부산항은 우선 On Dock CY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한편 약 2백만평의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광양항은 배후부지를 물류단지화해 향후 환경발해 경제권의 물류활동이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4)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운송망을 연결하고 각각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효율적인 육상운송체계를 갖추으로써 동북아의 단일운송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수송기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동북아 각국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도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흐름이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동북아의 단일운송망이 형성되고 역내 경제협력 및 대외교역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의 단일운송망이 형성되면 광양이나 부산항에서 한국의 여타 지역은 물론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중동북아시아까지 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집중화된 형태의 물류체계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철도가 연결될 경우 한국과 유럽 간의 철도수송거리가 현재의 TSR에 비해 짧아지고 부산에서 러시아의 나호트까지의 해상운송도 불필요하게 되어 대륙횡단철도에 의한 유럽과의 교역량 수송이 활발해질 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유럽지역 간의 화물수송에서도 해상운송과 철도수송의 연결지점이 현재 나호트/보스토치니에서 부산/광양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발해 및 한동해 경제권을 포괄하는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부산/광양항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C 한국 동북아교역

네트워킹의 중심국가

육상·해상통해 유럽·미주 잇는 다리 역할

대륙횡단철도 개통, 중심항만 개발이 과제

하며, 각각 경제의 다양성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력을 활발하게 하는 가장 유망한 특징이다.

1990년 동북아시아의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였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GN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25.9%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1995년 동북아시아의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수출비중 41.4% 보다는 낮으나 북미자유지역의 수출비중 18.2%보다는 높았다.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전체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역동적인 동북아시아의 증가율이 팔복할만하여 이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북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990-1995년 단 4.9배 증가하여 동기간 중 세계 전체 유입 약 1.5배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중국으로의 유입이 11배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동기간 중 오히려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 좋은 대조를 나타내었다.

지 못하여 노동력 및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2. 동북아시아 효율적인 운송 및 물류체계 필요

동북아시아역내 역외교역이 계속 크게 확대될 것으로 교역화물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송 및 물류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철도수송시설도 세계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운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없는 경제발전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운송망은 한국은 중국 및 북한과 활발하게 북한, 일본 및 러시아와는 동해를 내해나 내수면처럼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경제적 여건을 공유하고 있으며, 육상운송이 원활하지 않은 동북아 국가간 화물운송의 핵심적인 역할은 해상운송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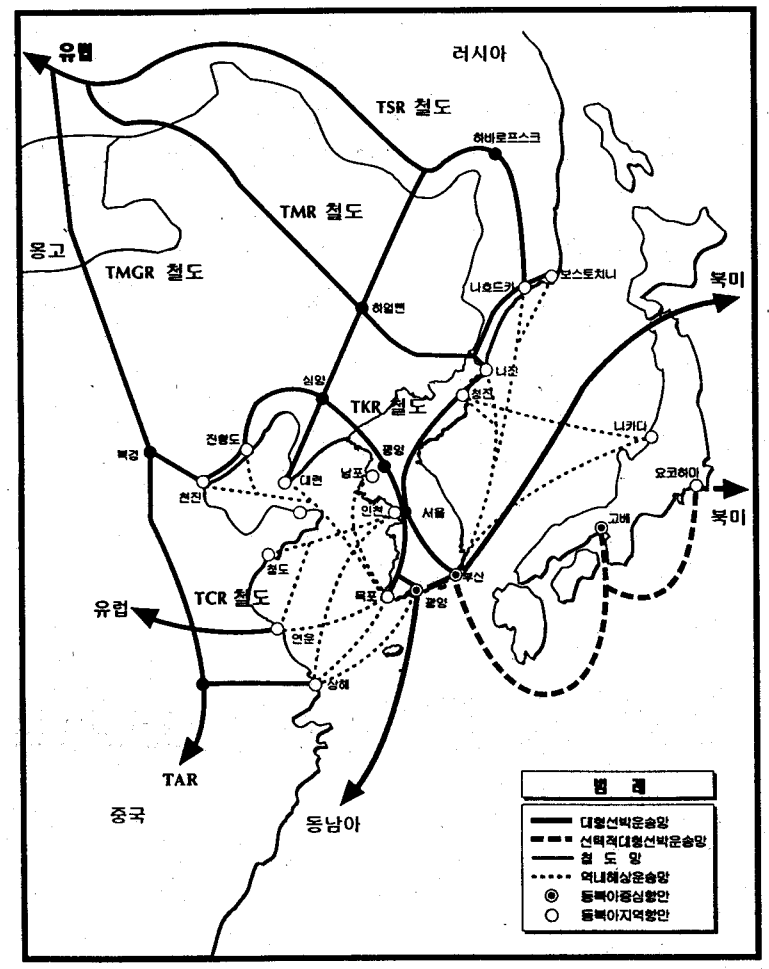
한반도에서는 당분간 해상운송이 주가 되겠지만 북한의 해운 및 항만시설이 극히 빈약하고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육상운송의 필요성이 커질 것

아지역 및 미주, 유럽, 기타 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역내의 운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효율적인 역내외 운송망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육상운송체계의 구축은 단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개방되기까지는 해상운송망을 통한 체계구축이 필수적이다.

역내의 해상운송망은 환경발해권역과 환동해권역을 확대하여 태평양 연안으로 뻗어 나가는 체계가 될 것이다. 육상운송망은 현재는 단절되어 있지만 남·북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여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3개 축의 철도와 11개의 도로를 통하여 동북아대륙을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 중국대륙철도(Trans-China Railway: TCR), 아시아횡단철도와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외운송망은 유럽국가들과 교역은 중국, 러시아, 몽골을 관통하여



교수동정

【서울캠퍼스】

△김광호(한의학)교수=28일부터 8월5일까지 의학기공강의차 중국방문

△김수자(화학)교수=8월1일부터 30일까지 국제학술대회참석차 미국방문

△김철(무역학)교수=8월4일부터 18일까지 Michigan대학방문차 미국방문

△김철(무역학)교수=8월12일부터 19일까지 해외연수차 영국방문

△이원(화학)교수=8월12일부터 20일까지 국제학술대회참가차 영국방문

【수원캠퍼스】

△한태동(유전학)교수=8월16일부터 31일까지 세계생화학학회참가차 미국방문

△이상규(경영)교수=8월15일까지 자료수집차 미국방문

△김중호(행정학)교수=8월6일까지 대학원전공연구지도차 미국방문

△김재상(행정학)교수=8월2일까지 행정학회논문발표차 미국방문

습 득

【수원캠퍼스】

△학교수첩=유효상(기계공)

4) △학교수첩=이경진(경영1)

△갑새다이러=임현주

△동장=이효준

등 기

등기물 우편실로

【수원캠퍼스】

△전산=이창우(4) △전자=현재수(4) △산디=정진만(3)

△삼유=이덕원(3) △전자전파=손정민(3) △일문=박소영

(1) △사회=김지연(3) △태권도=임대중 △중문=정해진

(3), 김민정(4) △원자=정종교(4), 우일탁(4), 김광표(4)

△유진=김재현(4), 손명선(3)

취업정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주)동주해상=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30일까지, 02)757-5651

△(주)세상정밀공업=무역업무직(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가정대), 31일까지 02)551-

1015

△(주)현대타이어=경상제일(정경대), 30일까지, 0522)62-3881

△(주)대한페인트=인사기획, 조직관리, 전략경영(정경대), 8월14일까지, 0343)67-6050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행정직, 전문직, 별정직(문리대, 정경대, 법대, 사대), 31일까지, 0371)760-2131/2

△(주)한화화장품=유통관리, 영업, 상품기획, 교육(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29일까지, 02)3450-0062/6

△(주)경신공업=관리, 생산, 기술, 품질(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8월4일까지, 0471)554-8941/4

△영동여자고등학교=국어, 국사, 물리, 수학(문리대), 8월4일까지, 02)422-2433

【수원캠퍼스】

△(주)동일방직=화공·토목·건축, 31일까지, 02)868-0040

△연세대원주캠퍼스=31일까지, 0371)760-2131

△(주)월간세라믹스=31일까지, 02)583-2747

△영동여자고등학교=국어·국사·수학, 8월14일까지, 02)422-2433

△(주)한국켄트록스=8월11일까지, 02)420-8014

△(주)경신공업=8월4일까지, 047)554-8941

아르바이트

방학 알차게

【서울캠퍼스】

△한솔마케팅=설문조사, 8월5일까지, 3142-0985

△(주)영후실업=백화점업무보조, 587-9278/9

△서울신회학교=자원봉사, 737-0378

△(주)한국농산물유통=영업보조(백화점), 28일까지, 421-3200

△(주)한국닐슨=TV시사회, 8월4일부터 7일까지, 548-9705

【수원캠퍼스】

△선일기업=단순작업, 0331)214-7390

△법계초등학교=탁구강사, 0343)81-0068

△경기페인트=작업보조, 0331)282-7984

△성일스포츠라자=수영강사, 0331)211-4123

△동수원예식장=전단지배포, 0331)35-0030

△(주)한국농산물유통=백화점영업보조, 02)421-3200

△(주)시사영어사=중·고생학습관리, 02)565-0170

△(주)동방미래화학=포장작업, 0339)353-4497/8

△김스마케팅=설문조사, 02)3452-9069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교통량조사원, 02)576-3289

【도서관】

신착도서

【서울캠퍼스】

△중국 대륙을 휩쓴 '오색 바람' 백권호, 다섯차례

△한국의 역사상 임계점 저, 김영사

△천안문을 열고보니 이동식 저, 창공사

△법이 뒤집힐 조상원 저, 현암사

△독 부러지는 여자로 살아남기 위한 열가지 법칙 Betty Lehman Harragan 저, 창해

△8월 8일 8월 8일 학회 저, 고려원미디어

△Pspice 기초와 활용 최명

외저, 복두

△운동생리학 Jack H. Wilmore 외저, 대만미디어

△임상스포츠의학 Peter Brukner 외저, 최신의학사

△운동치료론 Carolyn Kinsner 외저, 영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C&C 그룹 저, 탐구원

△죽은자를 위한 기도 남진우 저, 문학과지성사

△인간의 시간 백무산 저, 창작과비평사

△생태학 Eugene P. Odum 저, 개마고원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 저, 개마고원

△유럽의 발견 Emmanuel Todd 저, 까치글방

【수원캠퍼스】

△한국사회학평론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편저, 사회비평사

△한국의 여성운동 이효재 저, 정우사

△한국의 예술·역술인 김성룡 저, 집사재

△한국의 생명표 권태환 외저,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자본주의와 농촌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편저, 사회문화연구소

알림 이용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5시 마감

알림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식이나 알고 싶은 일을 전해드립니다.

문의 (02)961-0095, Fax. 962-7718 (0331)280-2056, Fax. 281-6378

신간안내

민속문화와 전통문화

김태곤의 21인공저

박이정

홍콩은 어디로 가는가

신용철저(경희대 사회학과교수)

우석

한글민속학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태곤 교수의 학문정신을 기리려는 취지에서 민속학과 구비문학 관련 논문들을 한데 모아 편집 출간했다. 제1부는 고인의 학문세계를 집중 조명하였고, 제2부는 전공논문들로서 네가지 심화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2만5천원

추천전 전집

김진영·김현주·김희찬 편저

박이정

철학의 여백

박이문 저/문학과 지성사

1권은 필사본 형태의 창본을 2권은 창자가 어느 스승의 법계를 따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했다. 3권은 1, 2권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창본과 조사보고서류 그리고 편집본류를 다루고 있다.

1·2·3 각권마다 새 참본 시작부분에 창자나 소장자, 창본의 특징 그리고 대장본의 소재처를 소개했다. 각 권2만원

6천원

많은 철학 논문들을 발표해 온 저자가 틈나는 대로 써두었던 수필을 한 자리에 모았다. 철학자의 수필담에 철학적 사색과 함께 정치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깊이와 넓이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려는 저자의 탐색이 돋보인다.

6천원